

서구아너스, 출범 1년 만에 회원 103명·후원금 35억 원 달성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하는 착한 나눔, 선한 영향력의 확산”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출범 1년 만에 회원 103명, 총 35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으며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12월 현재 서구아너스에 기업인, 의료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마음부자' 103명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후원자 4명 ▲5천만 원 후원자 9명 ▲3천만 원 후원자 90명이 서구청 1층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서구아너스는 민관협력형 복지 네트워크로 매월 주별별 나눔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엄마나라 보내주기' 프로젝트, 가족돌봄청년 장학금 전달, 경북 산불피해 주민 돕기, 장애인 부부 결혼식 지원, 폐지 수거 어르신 쉼 지원비 후원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관내 청소년과 함께 '독도 원정대'를 꾸려

교과서 밖 역사여행을 추진했고 11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 24명이 서구아너스 후원으로 '꿈 발견 수학여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서구아너스의 나눔은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복지의 12달을 채우는 생활형 나눔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서구는 지난 12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에서 서구아너스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원과 가족, 기업인,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하며 나눔의 여정을 함께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아너스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하는 회원 배가운동(MGM데이)'을 선언했다. 기존 회원이 새로운 기부자를 직접 초청해 서구아너스의 가치와 활동을 공유하는 착한 캠페인이다. 회원 100명이 200명으로, 200명이 300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며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꼼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구는 또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위기가구 등 4대 분과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서구아너스 회원들이 관심 분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2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에서 열린 '서구아너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서구아너스와 함께 학교밖청소년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광주서구제공

별로 사업 기획과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년 전의 첫걸음이 이제 100명의 큰 걸음이 되어 따뜻한 길,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열고 있다"며

"나눔은 어느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어주며 '나눔이 일상'이 되는 착한도시 서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양경제자청, 2025년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투자유치 발전방안 자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11월 13일 광양경제자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전략 및 개발사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광양경제자청 정책자문위원회는 GFEZ 발전방향, 비전 제시 및 주요시책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전략산업·국제경제·서비스·기업인·기업지원·조선해양·개발 등 각계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투자유치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저장시스템(BESS)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용기 정책자문위원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광양경제자청이 14개의 기업을 투자유치하여 4조 8천억 원의 투자금액을 실현하고 7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자문위원들의 실용성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중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자문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토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위원님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광양만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유공납세자 10명 선정... 감사의 마음 전해

성실 납세로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일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9월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 5개소, 개인 5명을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최근 3년 연속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 중 법인은 연간 3천만 원 이상, 개인은 연간 5백만 원 이상 낸 이들 가운데 납부 금액, 과거 포상 이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법인은 ㈜팔도, ㈜아이디알서비스, ㈜미스터덕, 케이비엔㈜, ㈜대신육공이며 개인은 염상민, 전세일, 양정철, 박용선, 김형선 씨가 이름을 올렸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표창패와 함께 '나주시장 인증 품질보증제'를 통과한 최고 품질의 '천년이음 나주배'가 기념품으로 전달됐으며 법인 수상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시/이명열 기자



담양군, 담양군사회복지협의회 창립 및 회장 취임식 성료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2일 담빛농업관 2층 세미나실에서 담양군사회복지협의회 창립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박은서 담양군의회 부의장, 함평·고흥·화순·안동군 사회복지협의회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전권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담양군사회복지협의회는 기틀을 다지고,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협의회는 지역 복지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군에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올해 9월에 설립됐다. /담양/이종욱 기자

함평군-사천시 4-H 본부, 한마음 단합대회 성료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함평군과 사천시 4-H 본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농업 발전과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함평군-사천시 4-H 본부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함평군에서 영호남 화합과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H 본부는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이번 교류 행사 또한 4-H본부 회원간 농업 신기술, 정책 등 정보 공유와 자

심 함양, 청년4-H회원 육성을 위한 지도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사천시 4-H 본부 회원 25명과 함평군 4-H 본부 회원 4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두 지역은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혁신농업 실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첫날에는 주요 한옥마을과 일강 김철선 생 기념관 등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을 시작으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관



람 및 돌머리해수욕장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양 지역 간 교류를 촉진했다.

이어 돌머리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화합의 밤 행사'에서는 함평군 농

축산물(천지한우사골, 나비쌀, 참기름)과 사천시 농산물로 만든 두유를 서로 교류하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평/전광훈 기자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h-well